



충청남도
복지정책 Brief

2021. 6. Vol. 05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
충만



행복한 복지 충남이 만듭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Chungcheongnam-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행복 중만

contents

기획주제

충남 코로나19시대의 사회 양극화_003

정책이슈

사각지대 없는 충남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_005

청년을 위해 뚝다_006

실천이슈

"뇌피셜"을 "오피셜"로, 천안시 중년 1인가구 실태조사_008

가난한 노인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_011

현장속으로

청년이 어깨 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남이 되길_013

우리 서로를 위하여_016

/ 기획주제

/ 정책이슈

/ 실천이슈

/ 현장속으로

/ 002_003



충남 코로나19시대의 사회 양극화

2019년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원인 모를 폐렴이 집단으로 발생하면서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전염병이 나타났고, 2020년 1월 9일 WHO는 이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명명하였다. 그 해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여성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확진되면서 이제 누적 확진자가 133,471명에 누적 사망자 1,912명(2021년 5월 19일자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기준)으로 일일 확진자도 700명선을 넘보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도 같은 날 기준 3,089명의 누적 확진자에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여 확진자는 전국의 2.4%, 사망자는 전국의 1.9%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조금만 방심하면 감염의 속도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특히, 경제 영역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낫설던 재택 근무가 현장 근무를 대신하고, 물건의 매매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져 배달을 주 업무로 하는 택배나 음식 배달 등이 더 일상화 되었다. 무엇보다 집합 금지로 인해 집단 식사 문화가 사라져 회식이 감소하였고 음식점, 술집, 유흥업소 등의 영업 정지 제한이 이루어져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왔다. 코로나19는 대인 접촉 특히 외국에서 생활한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이루어지다 보니, 입국자도 줄고 해외여행도 줄어 여행업의 타격은 심각했다.

코로나19가 부자나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없이 감염한다지만 이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분명 코로나19는 빈부를 가리지 않는 전염성을 갖고 있어 누구나 감염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코로나19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행정력, 의료체계, 정치환경에서 더 창궐하다는 것을 최근 심각하게 확진자가 나오는 몇몇 국가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코로나19는 차별없이 찾아오지만 감염과 대응에는 매우 차별적으로 이루어져 결과적으로 차별화된 질병이 되는 것이다. 이는 국가간 양극화를 가져오지만 한 국가내에서도 지역간, 소득간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였다. 소득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정보 활용의 양극화 등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 양극화가 심각해왔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어떨까?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2021.2.14) 국민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7%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응답하였는 것이다. 매우 심해졌다고 응답한 지역 중 가장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지역은 충청으로 57.8%였다. 전국 평균 52.8%보다 5% 포인트 높았다. 충남을 포함한 충청 지역에서 양극화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데에 눈길이 간다.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김승용 교수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사회적 위험 등이 닥칠 때는 여성, 아동, 노인, 빈민 등 소위 사회적 취약계층에 위험이 더 찾아 온다. 이들은 양극 중 강자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쪽에 있는 분들이다. 이들은 경제 불황으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계층이기도 하다. 노동을 하는 이 계층들은 대부분 단순 계약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업장들은 영세하여 코로나19와 같은 대형 악재에는 오래 버티지 못해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저소득층은 실직의 위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 각종 정보 접근의 장애 등 안전 장치가 없는 생활이 양극화를 더 심각하게 한다. 또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소위 자영업자와 농림어업 종사자 등 위기에 약한 업종들은 소득의 감소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 양극화 심화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올해 2월 15일 충청남도 양극화해소위원회 출범시켰고, 이 보다 앞서 조례를 제정하여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데에 긍정적 신호라고 본다. 우리 도에서는 충남재난지원금을 통해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에 대한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을 지원하고 농림어업인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다. 백신을 도입하여 집단 면역을 당초 계획보다 앞서 우리의 일상이 빨리 예전으로 복귀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언제가 될지도 모르고, 집단 면역을 달성하였다 하더라도 2년 가까이 손실된 수익을 단기간에 충당할 수 있는 방법도 요원하다. 더 심각해진 양극화는 다양한 면에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는 이대로 방치하면 더 심각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극단의 간격을 좁히려는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그것은 민관협력의 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도는 이전에 태안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도 전국민의 도움을 받기는 하였지만 우리 도민의 헌신적인 봉사로 청정한 바다를 되찾아 올 수 있었다. 코로나19가 전 지구적인 문제이고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할 때 이 문제는 해결 가능하다. 작년에 출범한 양극화해소위원회가 선언적이고 퍼포먼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여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우리 도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아기 수당을 도입하여 선도적인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재정적 어려움에도 이러한 시도를 통해 머잖아 저출산 극복과 출생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민간에서는 그 동안 위축되었던 소비를 진작하기 위하여 음식, 숙박, 목욕, 전통 시장 등의 이용을 이전 보다 활성화 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 그리고 도에서 여러 가지 유인책을 사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양극화 문제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던 상시적인 문제라고 치부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일상적인 생활이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자영업이 직격탄을 맞아 문 닫은 가게를 볼 때 이것이 바로 양극화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양극화를 방지하면 그렇지 않아도 높은 자살률이 더 높아지고, 다양한 유형의 학대와 고독사의 증가 등 인간성 상실의 시대가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유형의 양극화를 민관 협치로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사각지대 없는 충남 온종일 돌봄을 위하여

우리나라 가족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소가족화이다. 형제가 많던 대가족 규모에서 축소되고, 확대가족에서 핵가족화로 변화하면서 가족세대 구성이 단순해졌다. 또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함께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의 돌봄 문제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드러나게 되었다.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전체 맞벌이 가구 수와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대조적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 수와 비중은 늘었다. 더욱이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등교가 어렵게 되면서 '코로나보다 아이 돌보는 상황이 재난이다'라는 말이 돌 정도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생들의 돌봄 체계는 학교의 돌봄과 아이돌봄서비스,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과 충남형 온종일 돌봄, 지역 아동센터 등이 있다. 모든 돌봄 체계는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다양한 돌봄 체계로 인해서 오히려 돌봄의 사각지대 또한 발생하게 되었다. 부모들은 순차적으로 아동들의 돌봄을 신청하고 탈락하게 되면 다시 또 새로운 돌봄 이용기관을 찾고 이런 과정 속에 돌봄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돌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아동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함께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돌봄 수준을 높이는 문제 또한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강석전 충남지부장



학교와 달리 돌봄을 이용하는 아동과 부모들의 욕구는 다양하다. 단순히 부모가 일을 마치고 올 때까지 아동을 돌봐주는 곳을 원하는 것만은 아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한 돌봄, 학습을 위한 돌봄, 사회성을 위한 돌봄 등 다양한 욕구가 있을 것이다. 학교는 아이들의 성적 향상이라는 목표가 있어 학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돌봄은 다르다. 그중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예로 들어보면 학습 프로그램뿐 아니라 아동들의 정서를 위한 프로그램, 미술과 음악 등 예체능 계열 프로그램, 견문을 넓히고 눈과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는 여행 프로그램 등 지역아동센터의 돌봄은 아동의 몸과 마음의 성장과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돌봄은 이용하는 아동들의 특징이 있다.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동들은 돌봄을 통해 배려와 공동체를 배우게 된다. 부모와 자신만이 살던 세계에서 혼자 성장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성향으로 자란 아동들이 돌봄을 통해 다양한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양보와 배려를 배우게 된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함께 사는 것을 배우고 점점 성숙한 아동이 된다. 또한, 다문화 아동들은 돌봄을 통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게 되고, 일반 아동들은 다문화 아동들을 포용하고 다르지만 같은 친구임을 알게 된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 아동이 처음 오면 친구들과 대화도 못 하고,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데 한 달도 안돼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언어도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돌봄은 이렇게 돌봄만의 장점이 있다. 돌봄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미래를 꿈꾸며, 몸과 마음의 양식을 채워주는 곳이다. 또한, 돌봄을 운영하는 실무자들과 선생님들 역시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각과 마음을 표현해서 건강하고 밝게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돌봄은 제2의 가정처럼 우리 사회에 필연적으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돌봄이 지금보다 더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돌봄 체계보다 돌봄의 단일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용을 원하는 부모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정보를 찾고 전전긍긍하는 것에 시간을 쏟지 않도록 단일화된 정보제공과 이용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충남에서는 충남형 온종일 돌봄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아이들을 발굴하게 되었고, 이런 아동들을 케어할 수 있게 되었다. 충남형 온종일 돌봄이 지금처럼 돌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것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다양한 돌봄 체계를 단일화함으로써 돌봄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또한 새로운 시설을 다시 만들기보다 기존에 잘 정착된 센터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를 바란다. 돌봄 기관에 대한 존중, 다른 돌봄 주체와의 협업 구조를 만들고 단순 보육의 개념이 아닌 공동체, 동반자 관점에서의 돌봄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청년을 위해 댄다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조승만 위원장/문학박사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층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지속되는 팬데믹으로 경제성장은 둔화되고 20대 청년들이 취업절벽에 갇히면서 '잃어버린 세대'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요즘 입시, 취업, 결혼, 출산, 육아 등 모든 것을 포기한 N포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의 삶은 너무도 고단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금년도 1/4분기 기준 우리나라 실업률은 4.2%, 전국 청년실업률은 8.8%로 전체실업률의 2배에 달한다. 우리 충청남도 또한 전체실업률은 3.9%인데 비해 청년실업률은 8.4%로 2배가량 높은 현실이 불확실한 청년들의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

본 의원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과 소통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청년정책의 문제는 당사자인 청년을 시혜의 대상, 정책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위원회를 구성해 청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결심한 계기가 됐다.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집행부서 또한 청년정책을 집중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해 도지사 직속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복합문화 공간조성도 필요하다. 청년들이 상시적으로 건전한 놀이문화를 형성하고 창의적인 문화 콘텐츠를 기획·생산·공유하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놀이의 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나아가 지역대학을 지역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 도내 대학을 충남도정의 동반자로 삼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학에 예비창업센터를 개설하여 청년 일자리를 종합 관리하고, 폐교 등 유휴공간을 청년 창업몰로 제공하는 한편 창업지원센터, 창업카페, 청년전용사이트 등을 설립하여 청년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집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충청남도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청년들이 주역이 되는 부자 농어촌 가꾸기 사업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 농부도 기업인이 될 수 있도록 ICT 기술을 융복합화한 6차산업 육성, 산학연 농어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의 다음 세대인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면서 충남의 자생력 및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 미래에 도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본 의원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청년들과 소통·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청년정책을 도출하고, 충청남도 담당 실·국과 제반 청년관련 문제점을 개선·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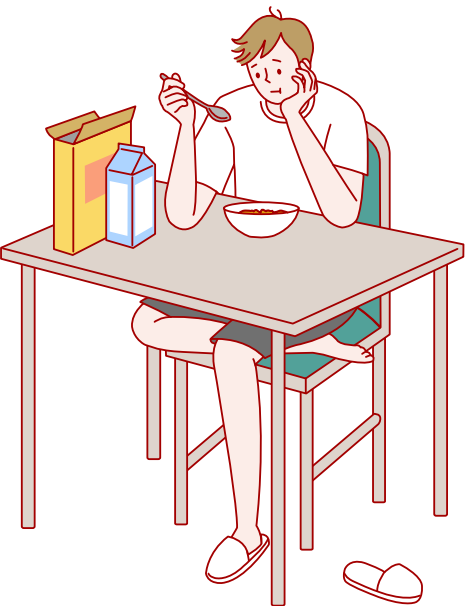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이영준 주무관

“뇌피셜”을 “오피셜”로, 천안시 중년 1인 가구 실태조사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점으로 복지전달체계가 개편되고 다양한 복지제도가 신설되어 발전되었음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한 사건이 끊임없이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방법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 주기로 내려주는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공과금 체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위기 의심가구를 찾아내고 있고, 민관 조직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천안시의 경우 “읍면동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지역 내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민간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집배원, 전기(가스) 검침원, 주택관리사 등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접촉하는 생활업종 종사자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발굴하고 있다.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는 기초연금제도의 확대로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공적부조의 경계 안으로 쉽게 들어오며, 장애인들도 장애인 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의 욕구조사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의 경우도 완화된 소득 기준과 증액된 아동양육비로 인해 경제적 지원이 상향되었다. 즉, 복지위기가구 발굴체계와 발굴된 대상자를 위한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발전되었다. 이러한 복지전달체계 개편과 복지서비스 확대로 우리 주위에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고, 발견하더라도 쉽게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장년들은 여전히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은 개별 담당부서가 있다. 하지만 중년은 그런 부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부서의 존재가 없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서비스가 미약하다는 방증이고, 실제 그 동안의 공공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에 맞춰진 것으로 중장년 복지위기 대상자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중장



년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하게 되면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도 대응이 어렵고 대상자도 답답한 상황이 전개된다.

읍면동에 찾아오는 중장년들의 경우 “만성질환이 있지만 심각한 질병은 아니며, 일용근로 또는 단순노무 등 불안정한 일자리 상태와 가족관계는 단절된 상태이며, 사회적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회적관계도 악화된 상태”까지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업무 상 체득한 중년 대상자들의 특징이며, 그래서 복지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요즘 말로 “뇌피셜”로 일할 수는 없었고, 이들을 위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자료 즉 “오피셜”이 필요했다. 물론 국가통계자료 및 충남사회조사 그리고 연구 문헌들이 있겠지만 천안시에 딱 맞는 자료는 아니어서 직접 필요한 자료를 조사해보기로 했다. 기획과 준비 그리고 실행과정은 예상대로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조사들은 중앙부처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문(조사)기관 용역을 통해 수행하는데 천안시의 이번 조사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과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들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여 부족하지만 조사를 완료하였다.

천안시 중년 1인가구 실태조사는 천안시에 주민등록 둔 만 50~64세의 1인 26,316명 대상으로, 2020.5~11월까지 실시하였다. 응답률은 5,846명으로 22%로, 1차로 1인 가구의 경제, 주거, 건강, 사회관계인 생활실태를 조사 후, 1차 응답자 중 복지위험군 3,120명을 대상으로 2차 욕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대상자 가구에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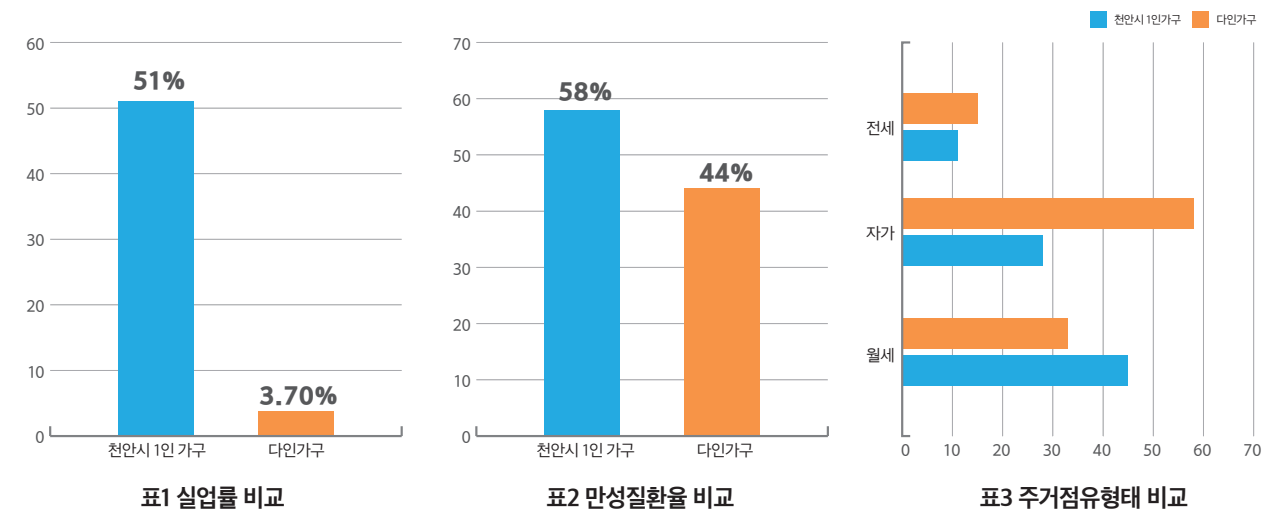
1인 가구의 생활실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천안시 중년 1인가구의 실직상태가 심각함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51%가 실직상태로 다인 가구 실업률 3.7%(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20.11 기준)보다 월등히 높다.

둘째, 천안시 중년 1인가구의 건강상태를 살펴보면, 만성질환자가 응답자의 58%로, 다인가구의 만성질환율 44%(보건복지부, 2016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대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천안시 중년 1인가구의 주거의 점유형태로 보면, 응답자의 45%가 월세이며, 자가 29%, 전세 11% 순이다. 다인 가구 점유형태를 보면 자가 58%, 전세 15% 월세 23%(통계청, 2019 일반가구 행정구역별 점유형태)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복지위험군의 2차 욕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긴급복지 지원, 민간복지서비스
 연계인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전체 응답의 30%로
 가장 높았다.
 둘째, 의료비 지원, 정신 상담 및 치료인 건강 지원에 대한 욕
 구가 전체 응답의 15%로 두 번째 순위였다.
 셋째, 임차료 지원, 거주지 이전, 집수리 지원인 주거 지원에
 대한 욕구가 전체 응답의 13%였다.
 넷째, 구직, 고용유지, 취(창)업인 고용 분야에 대한 욕구가 전
 체 응답의 11%로 유의미하게 나왔다.

해서는 “근로능력평가”를 통과해 아픔이 일을 할 수 없
 는 상태임을 증명이 필요한데, 이들의 아픔은 평가를 통
 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셋째, 주거비 지출이 높다. 월세거주로 정기적인 주거비 지출
 이 있는데 중장년 1인가구의 절반은 실직상태에 있으며,
 임차료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공적부조로서 중장년들
 은 선정기준을 통과하기는 힘들다.

그간의 업무 경험과 조사결과로 보면 중장년 1인가구는 현재
 다른 대상군보다 복지제도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적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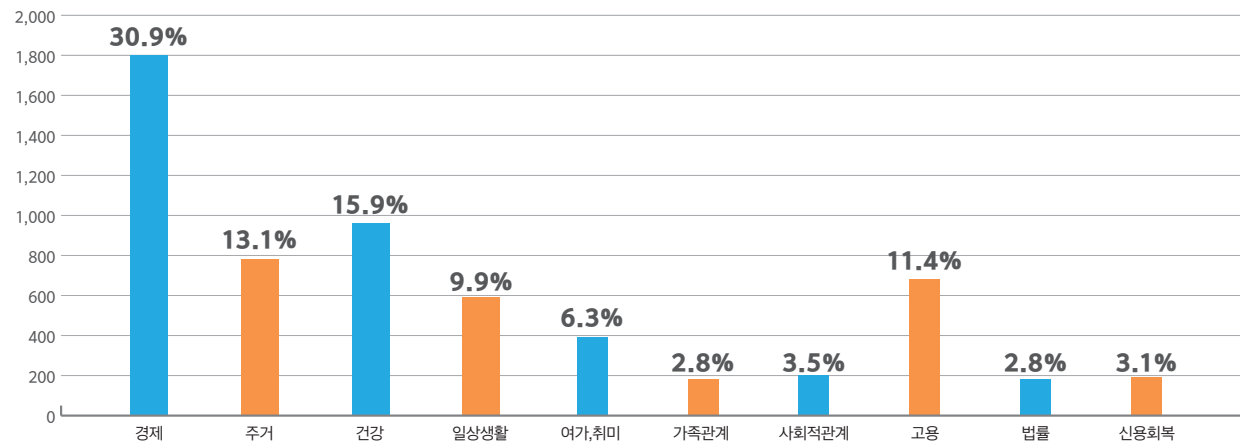


표4 2차 욕구조사 대분류

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업무 상 체득
 한 중장년 1인가구의 특성이 유사하게 들어맞고 있다. 그 동안 “뇌
 피설”였던 것이 천안시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오피셜”하게 확
 인되었다.

조사결과와 현재의 읍면동에서의 복지제도와 결합해본다.

첫째, 실업률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 공
 적부조제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공적부조제도의 선정기준에 중장년 1인가구는
 포함되기 어렵다.

둘째, 중장년 1인가구가 일선 현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아프
 며 아픔을 호소한다.` 중장년이 공적부조에 선정되기 위

등 공공의 복지서비스가 어렵다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민간의
 자원을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이는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개별 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광범위한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
 나 중년1인가구의 증가 속도는 우리의 대응속도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사회복지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대응책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최전선에 천안시 중년1인가구 실태조사
 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조사 결과를 활용해 동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과 함께 중장년을 위한 복지정책 개발에 노력하겠
 다.



가난한 노인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

빈곤한 노인들의 어려움

코로나19는 생활 속 비대면 의사소통과 만남의 방식에 있어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상황에서 노인은 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보 습득에 있어 한계를 보인다. 특히
 노인빈곤층은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

첫째, 관계의 단절로 인한 상실감 증가이다. 코로나19로 인하
 여 노인여가시설도 대부분 문을 닫아 집에 외롭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심한 우울감과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존 시설들
 이 대면 서비스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노인들과의 교류 자체
 가 없어져 심리적인 불안감이 팽배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전
 국의 복지시설들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추어 너도나도 비대면 사
 업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사업은 시설중심 서
 비스 제공의 변화라는 점에서 점수를 줄 수는 있지만 실질적인 만
 족도나 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에 대한 점수를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비대면 활동의 부적응으로 인한 정보 소외와 경제적 어
 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대면으로 하는 활동
 에 익숙하다. 예를 들어 은행업무, 장보기, 서류발급, 정보 획득을
 위해 직접 기관을 찾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스마트폰을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김윤진 총괄과장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활동의 일상화와 키오스크를 중심으로 변
 화하는 행정 처리에 적응하기 어려워 정보소외의 계층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고, 물리적으로 먼 곳까지 대면서비스를 찾아다니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 신청주의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다양한 복지서비스로부터 제한
 될 수 있다. 참고로 우리 기관에서 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
 용자 930명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소지자를 조사하였는데 불과 60명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스마
 트폰을 기반으로 구축 되어지는 정보화의 큰 변화 앞에서 노인들
 의 특성에 맞는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노인빈곤층을 위한 대책 및 대안 제시

첫째, 대면과 비대면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기존 대면 사업의 경우 시설 중심으로 진행되는 방식과 마을단위로 진행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한다. 예를 들어 외부 교류가 적은 노인 가정을 교육장소로 선정하고 강사를 파견하여 주변 이웃 노인 3~5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시설중심과 개별방문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의 한계를 벗어나면서 향후 마을단위 커뮤니티 케어 기반을 구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대면사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이용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어르신 댁에 수업참여를 위한 컴퓨터 또는 테블릿을 설치하고 그 활용방법을 천천히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것이다.

둘째, 예산군 지역 내 노인들에 대한 디지털역량강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공과금을 납부하고, 은행 업무를 보며, 장을 보고, 서류 제출만 가능하여도 노인들의 일상생활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을 진행 할 경우 집합 교육 보다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교육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셋째,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현재 노인복지관의 경우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익형 일자리들이 대부분이다. 참여자 모두가 같은 시간을 일하고 같은 급여를 받는 현재 상황에서 더 나은 일자리를 찾으려는 의지 또한 없어지며 현실에 안주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에서도 노인일자리 급여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기 위한 노력과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에 서도 노인들과 지역 일반업체와의 취업연계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일반취업에 성공할 경우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노인복지 현장에서 바란다.

현장에서 사업수행 경험을 통해 이용자들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면 보다 이용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정책을 수립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용자 중심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과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할 때도 현장 전문가인 사회복지사의 전문성과 경험이 반영도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복지는 이용자 연령, 성별, 지역, 가족구성 등 전통적인 집단 구분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집단의 욕구를 통해서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개인의 특성에 따른 욕구는 무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만족도와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정책은 정량적인 평가보다는 정성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누구에게 얼마를 주었는지, 몇 명에게 주었는지, 몇 번 주었는지 등의 목표보다는 욕구는 제대로 조사되었는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연계하였는지, 클라이언트의 변화정도는 어떠한지 등의 사회복지사의 전문적인 개입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노인은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앞서 열거한 내용뿐만 아니라 심리, 주거, 안전등 기본적인 생활 자체가 되지 않아 힘들어 하는 노인 분들도 주변에 많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청춘 시절 국가의 발전과 부흥에 큰 역할을 하시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 대비에는 부족할 수 밖에는 없었던 시절을 사신 분이 대부분이다. 가족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해 오셨지만 가족에게 버림 받은 노인 분들에게 기댈 곳은 국가가 최후의 보루이다. 개개인의 욕구를 존중하고 노인들의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개발하여 국가로부터 보호 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더 많아지길 기대한다.



셋째, 빈곤한 노인들의 생활환경 악화이다. 특히, 생계를 위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은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노인 가정 등 수요처를 방문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다. 그동안 노인일 자리의 경우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지역사회 연계의 목적을 가지고 공익형 사업이 운영된 결과이지만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 수요처 시설이 문을 닫으면 노인일자리 운영이 어려워졌고, 문을 열더라도 감염병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외부 인력의 방문 자체를 꺼리게 되었기 때문에 일자리 활동을 중단하는 수요처가 많았다. 노인들에게 월수입의 반을 차지하는 노인일자리 급여는 경제의 문제 나아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또한 각종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운영중단도 노인들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료급식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훈대상자, 장애등급자등을 대상으로 취약계층 노인들의 건강,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외에 경제적인 간접지원의 효과도 있다. 하지만 복지관의 경로식당 마저도 2020년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되면서 약 120여명의 무료급식 이용자에 대한 점심 제공이 끊겨 식비 지출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관에서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료급식 취약계층 우선이용자 40명에 대한 대체식을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들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상황에 지쳐가고 있다.



○ 청년이 어깨 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충남이 되길

충청남도 청년네트워크
지민규 위원장



Q. 현재까지 지민규위원장이님 활동하셨던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주세요.

A. 2017년 제1기 아산시청년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하였고요. 아산시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만18~34세 청년으로 대학생, 직장인, 청년창업가, 문화예술인 등 각계각층의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대학의 총학생회와 협약 체계 후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년대전, 찾아가는 청년부스 등 청년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충남청년네트워크 모집이 있었고 충남 청년을 대표하여 모임 및 활동을 주관하는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분과별 활동을 통해 실천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며 제안과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당사자 중심의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9일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였고 8월에 시행이 되었죠.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 전국의 청년 여러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제안을 계속 했고, 청년의 날 행사에도 관심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했어요.

Q. 위원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아산에서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 충남청년네트워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민규라고 합니다. 잠깐 대학만 외지에서 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산에 친구가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은 거예요. 친구들이 고향에 머물지 못하고 모두 떠날까 생각하던 중 우연히 아산시에서 청년참여기구, 아산시청년위원회 모집 현수막을 보고 재미삼아 신청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위원장이 되었고,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충남청년네트워크도 신청하게 되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청년정책을 위해 일하시면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A. 청년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도 느낀 것은 늘 수도권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 아쉬운 점입니다. 서울에서 하는 것을 지방에서 초대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요. 13년도부터 등록금문제가 청년정책이 시발점이 되었고요, 17년도에는 일자리, 현재는 코로나19 속 청년들의 마음건강, 코로나블루 같은 이슈들이 또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각 이슈들마다 주도적으로 한 그룹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이 나이가 들다보니 청년 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처음 시작한 청년활동가들이 가장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나이드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게 있는 거죠. 일종의 청년들 사이에서 세대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또한 청년의 범주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이슈입니다.

현재 청년기본법은 19세~34세까지 되어 있는데요. 충남 청양군 같은 경우 45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있고요, 아산은 39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사를 할 경우, 청년정책의 대상자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창업을 하는 친구들은 창업 당시에는 청년으로 지원을 받지만 중간에 탈락하는 사례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충남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매우 큼니다. 쉽게 생각하여 천안아산당진 북부권과 그 나머지로 나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북부권 도시지역들과 농촌지역의 일자리이슈, 주거이슈 두 가지만 보더라도 현저한 차이를 보입니다. 천안아산 지역은 원룸들이 많지만 주거비용이 비싸서 청년들의 독립에 방해가 됩니다. 그에 반해 농촌지역의 도시들은 일반 민간기업의 아파트에서 사는 경우가 더 유리한 거죠.



그들에게는 문화예술 지원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대중교통만 보더라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안아산은 지하철이 있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버스노선도 매우 열악합니다. 일자리도 천안아산은 그나마 취업할 수 있는 기회와 기업들이 많지만 농촌지역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네트워크에서도 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의제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취직하게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경기 지역으로 나가 취업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외지로 취업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한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은 수도권 청년정책이나 제도, 서비스가 매력적이다 보니 주소이전을 하지 않고요.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Q. 충남 지역의 청년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거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지 분야와 관련된 청년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복지는 흔히 생활환경, 삶의 수준과 관련된 여가 문화와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예를 들어 아파트, 도로, 생활수준은 좋아졌지만 청년들이 공유하고 쓸 수 있는 여가문화 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충남의 청년들은 충남이 답답하다고 해요. 결혼하여 아이를 키우는 청년들은 교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을 받아주는 기업이 많이 없는데요. 아직 육아휴직에 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또한 농촌지역이나 공장지대로 가게 되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집단이 매우 많아요. 그들과 문화적 격차나 사회적 시선들이 부정적인 것도 청년들이 충남을 떠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동네는 아예 외국인노동자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청년이 사회로 나왔을 때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안전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자취를 시작한 청년들은 가스비 내는 법, 관리비, 주소 이전 등 아예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자립교육이 없는 거죠.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은 모든 서비스나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듭니다. 차별받고 있는 사각지대죠.

Q.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A. 저는 행정시스템과 청년정책에 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지자체나 도, 정부의 청년정책이 거의 다 비슷합니다. 또한 청년 전문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력을 키워야 합니다. 특히 청년 당사자의 전문인력을 키우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청에서 일하시는 주무관님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 청년문제를 인식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죠. 그럼 다시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실제 청년 정책에 있어 중복이 많이 발생합니다. 서로 다른 부처 간 중복으로 수혜를 받는 거죠. 진짜 받아야 하는 청년들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홍보의 문제지요. 청년별로 행사가 홍보방법도 체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년정책은 대학생 위주입니다. 행사도 평일 낮에 많이 진행이 되지요. 그럼 평일 낮에 일하는 청년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청년들이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합니다.

Q.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주된 기능은 돌봄입니다. 청년 돌봄과 관련해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일까요?

A. 청년들은 성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온전히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죠. 우울감이 크고 완전히 개인화된 사회의 직격탄을 맞은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세대들은 그간 자원들이 있지만 청년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학자금대출의 문제,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 상대적 박탈감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굶어죽는 청년 기사는 매우 아픈 사건입니다. 저는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은 사회 어두운 곳에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살도 큰 문제입니다. 제 주변에도 타지에서 온 청년 둘이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도움 받을 곳을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친구들을 위한 돌봄서비스가 많이 개발되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생겨나고 활동도 해야 하죠. 청년들이 겪는 문제를 연구하는 연구소도 생겨야 해요. 체계적인 연구와 근거들이 모여 청년이 행복하게 사는 충남이 되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날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집으로 13년째 출근하는 나는 베이비시터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난 후 가장으로서 일을 해야 했던 살림 하는 것과 아이돌보는 일 말고는 함부로 아는 게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베이비시터 밖에 없었다.

그렇게 시작한 40대 나의 첫 직업 베이비시터 돌봄노동자. 다행히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되어서 13년 동안 두 아이의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었다. 돌이켜보니 내가 힘들어 할 때 아이들이 신나게 노래를 들려주며 즐겁게 해주었다. 그 때 나는 알았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내가 보살핌을 받는 일이라는 것을. 아주 아주 따뜻하고 보람된 일이라는 것을..... 알아가며 나는 60을 맞이하게 되었다.

내 나이 60. 크루즈여행을 하면서 아름다운 노을을 즐길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나는 다시금 돌봄종사자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재활병원에서 환자들 케어하는 일을 배우고 재가복지와 장애인활동지원사 일을 병행하던 중 YWCA새일센터에서 연락이 왔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요양보호사를 모집하는데 지원해보면 어떨겠냐고. 사회서비스원? 그것이 어떤 곳인지 검색해보니 ভাল

충남사회서비스원 천안종합재가센터
고금숙



모르겠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말로 돌봄이 필요한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냉가슴을 뛰게 하였다. 서둘러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1등으로 접수하고 합격하고 지난 11월 당당히 충남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2월 19일 드디어 부모님과 동생들이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모두 병원으로 가고 홀로 격리상태에 놓인 12살 사춘기 아이를 돌보기 위해 그 집으로 들어갔다. 들어가기 전 중앙지원센터에서 연구원님이 오셔서 코로나가 어떤 병인지 부터 알려주셨다. 방호복을 입고 나를 보호하는 법과 올바른 소독법까지 꼼꼼히 교육시켜주셨다. 가시면서 바라보시던 연구원님의 그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도 힘이 되었다. 연구원님이 가시고 나니 이번엔 사회서비스원 팀장님께서 오셔서 방호복과 물품들 킁킁 거리고 집안까지 들어다주셨다. 우리 센터장님은 마치 전쟁터에 자식 보내는 엄마처럼 담요며 소독제며 챙겨주시며 또 챙겨주시는데 그런 대접을 받고 보니 어려운 일이라는 하지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드디어 그 집 앞. 후우!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고 방호복을 입고 집안으로 들어가 OO이를 만났다. 5식구가 며칠간 격리상태로 머물다 떠나간 집은 생각보다 훨씬 위협적이고 무서웠다. 베란다에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마스크며 휴지 입에 닿았던 음식물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집안에 떠다니는 것 같아서 잠깐 멘붕이 왔는데

내 옆에서 이것저것 설명해주는 아이를 보고 정신을 차렸다.

먼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인사를 나누고 교육받은 대로 차근차근 정리해나갔다. 아이한테 방호복 입은 내 모습이 무섭게 느껴질까봐 업무상 입어야 하는 거니 이해해주렴 하고 동네할머니처럼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2시간 동안 소독을 겸한 청소를 할 예정이니 좀더라도 옷 단단히 입고 환기시키자고 하여 이해시키고 단독방에 현 상태를 설명하고 오염물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툇을 올리자마자 보건소 측 직원이 바로 오염 물질 수거를 처리해주는 것을 보고 나는 또 한 번 감동을 받았다. 대한민국 짱짱. 아이처럼 환호가 절로 나왔다.

여러 가지 물건이 필요하여 집으려하니 확진된 식구들 손길이 닿았던 곳이 없는지라 알코올을 가지고 문고리며 식탁 주방 그 아이와 내 손이 닿기 전 무조건 먼저 소독을 하고 물건을 만졌다. 그러면서 핸드폰과 게임기도 소독해주고 나니 어느새 사춘기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OO이는 내 옆에서 떠나질 않고 엄마한테 전화되면 스피커폰으로 돌려서 나랑 통화할 수 있게 배려해 주고 있었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방호복을 벗고 자리에 누었는데 갑자기 OO이가 문을 벌컥 여는 것이었다. 속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OO이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물었다.

"왜? 뭐 필요한 것 있어?"

"아니요. 그냥요."

다시 자리에 누우니 30분쯤 있다가 또 문을 벌컥 여는 것이 아닌가?

"왜? 뭐줄까? 아니요. 그냥요."

그 때 알았다. 이 아이가 혼자 있었던 짧은 시간 동안에도 무척 무섭고 두려웠겠구나.....

"OO아 내 방 문을 열고 잘 테니 네 방문도 열고 자렴." 하고 방호복을 다시 입고 마스크를 끼고 자리에 누었다. 그리고 자주 자주 OO이 방에 들어가서 인기척을 내주니 안심하고 깊이 잠

이 들었다. 만약 사회서비스원이 없었다면 긴급돌봄이 없었다면 이 아이는 어땠을까. 감히 말하건대 사회서비스원을 대신한 내 손길이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손길이었을 거고, 할머니의 손길이었을 거라고.

잔기침을 하던 OO이는 결국 확진을 받고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가기로 했다. 짐을 싸주며 밀접 접촉이 일어났지만 이미 내 마음은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혹 방역수칙을 어기는 행위가 될까 말로만 위로해주려니 안타까운 마음 주체할 수가 없었다.

"OO아 코로나 별 거 아니야 그래도 너에게 신경 써주셨던 많은 분들 생각하며 따뜻함으로 기억하자 우리."

"네." 하며 대답하는 OO이.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사춘기소년 OO이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해줬다. 집에 잘 가셨냐고. 자기는 식구들 만나서 괜찮다고. 아직 집에 도착 못했다고 하니 도착하시면 또 통화하자고 아쉬운 마음 표현해 주니 너무 고맙고 또 보람되었다.

그리고 14일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일하던 곳은 다 정리되었고 우리 아들은 모텔을 전전하며 또 다른 자가격리의 고통을 감내 해줬다. 사람들은 묻는다. 힘들지 않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자기는 못할 것 같다고. 왜 두렵지 않겠는가 그러나 나는 누군가 또다시 긴급돌봄을 요청한다면 달려갈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사춘기 소년이 내 주위를 맴돌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게 하는 만드는 기적의 돌봄. 그 일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니깐요.

그 날 이후,
나의 모닝. 동반이에게 기름을 만땅 채워주며 말한다. 동반아 언제라도 긴급돌봄 요청이 오면 달려가자구나 봉봉.



행복한 충청만

충청남도 복지청이
다 만듭니다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Chungcheongnam-d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32416 충남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충남전문건설회관 5층
Tel. 041) 330-2400 Fax. 041) 330-2498~9
cn.pass.or.kr

발간위원

안치용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대외협력관)
김동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실장)
정덕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장)
최승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경영지원팀장)
이상진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서비스지원팀장)
이영화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시설지원팀장)
박선욱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복지협력팀장)
이수영 (충청남도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팀 전문연구원)

집필진

김승용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강석전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충남지부장)
조승만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문학박사)
이영준 (천안시청 복지정책과 주무관)
김윤진 (예산군노인종합복지관 총괄과장)
지민규 (충청남도 청년네트워크 위원장)
고금숙 (충남사회서비스원 천안종합재가센터 요양보호사)

- 복지정책 이슈 및 충청남도 복지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본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 및 사업을 소개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 발간에 관련된 문의사항과 개선을 위한 의견이 있으시면 정책연구팀 (041-330-2439, free1088@cn.pass.or.kr)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충청남도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